

제 2장 한국고대의 의술과¹⁾ 의학

<고대 의학 자료 ; 2013.09.12>

-제도

A)갑신(15일), 조정의 의장대가 元제의 의식을 차렸다. 좌우대신, 백관 및 백제의 왕족 豐璋, 그 아우 塞城, 승충, 고구려의 侍醫 毛治, 신라의 侍學士들을 거느리고 뜰에 나왔다(『일본서기』 권25, 백치 원년(650) 2월 ; 효덕천왕)

B)칙을 받들어, 역박사 시덕 왕도량, 역박사 고덕 왕보손, 醫博士 奈率 王有悽陀, 採藥師 시덕 潘量豐...등을 보내왔다 (『일본서기』 권19, 흙명천왕 15년(555) 2월)

C)醫學은 효소왕 원년(692)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학생을 가르쳤다. 本草經 · 甲乙經²⁾ · 소문경³⁾ · 針經 · 맥경⁴⁾ · 明堂經⁵⁾ · 難經⁶⁾을 그 業으로 하였다. 博士는 2명이었다(『삼국사기』 권39, 직관 중).

-의술

A)『又若毒氣攻心 手足脈絕, 此亦難濟, 不得已作 此湯十愈七八方. 『千金』云 "治脚氣入腹因悶欲死腹脹茱萸湯方". 吳茱萸 六升 木瓜 二枚切, 右二味, 以水一斗三升, 煮取三升, 分三服, 或以吐汗便活. 蘇恭云: "服得活甚易, 但鑽擊 一作急, 少時熱悶耳." 此方是爲起死, 是『高麗老師方』與『徐王方』相似, 故應神妙. 備急千金, 蘇徐同方云: "無木瓜, 可取吳茱萸一色, 煮服. 又方, 加青木香 三兩, 犀角 二兩屑." 亦云: "此湯, 起死人."(『外臺秘要方』 권28, 「脚氣衝心煩悶方二十二首」).

→또 만일 毒氣가 心을 공격하면 손과 발의 脈이 끊어진다. 이것은 또한 救濟하기 곤란하다. 그래도 부득이 처방을 내야 한다면, 이 湯은 十중에 七에서 八은 낫는 處方이다.

『千金』에서는 "脚氣가 腹에 들어가 괴로워 죽고자 하고 배가 불룩한 것을 치료하는 茱萸湯의 處方이다"라 했다. 吳茱萸(오수유) 6되 木瓜 2枚를 자름, 위의 두 가지 약물을 물 한 말 세 되를 넣고, 다려서 세 되로 만들어 세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더러는 그렇게 해서 게우고 땀을 내고 똥 오줌을 누우면 살아난다.

蘇恭이 이르기를 "이를 복용하면 살아나기가 몹시 쉽지만 급히 사용하면 잠시 동안은 熱이 나고 괴로움이 있을 뿐이다"라 했다. 이 처방은 起死回生한다. 이것은 『高麗老師方』 및 『徐王方』과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神妙하게 應한다.

B)『百濟新集方』治肺癰方 黃耆一兩 以水三升 大取一升 分二服. 葛氏方同之(『의심방』 권15, 치폐옹방 제13)

1)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3; 이현숙, <5세기초 신라의사 김무와 의학의 발전>『한국사상과 문화』14, 2000 ; 이현숙, <신라 애장왕대 당 의학서 『광리방』의 도입과 그 의의(1)>『동양고전 연구』13, 2000 ; 이현숙, <신라 애장왕대 당 의학서 『광리방』의 도입과 그 의의(2)>『동양고전 연구』14, 2000.

2) 중국의 의서, 8권 119편 진의 황보일이 찬함.

3) 중국의 중 가장 오래된 의서 중의 하나. 황제내경의 하나임.

4) 중국의 의서(10권 97편), 서진의 왕숙화의 찬.

5) 중국의 의서, 灸法을 논함. 송의 서방자가 찬함.

6) 황제내경의 뜻을 발명해서 난문을 설명하기 위한 것. 周의 秦越人이 찬함.

→폐옹을 치료하는 처방 : 황기 1량을 물 3되에 넣고, 다려서 1되를 만들어 나누어 복용한다. 갈씨방과 같다.

C) 『百濟新集方』 治丁腫方 毒氣已入心欲困死方. 取菊葉 合莖取菊葉合莖, 搗絞取汁三升, 頓服之 (『의심방』 권15, 치정중방 10)

→정중독기가 이미 심에 들어가 곤란하게도 죽고자 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처방 : 국의 입과 줄기를 함께 넣고 짜서 비틀어 짜서 즙 세되를 취하여 조금씩 이를 복용한다.

D) 『百濟新集方』 云 治丁腫方 取菊葉 合莖 取菊葉合莖, 搗絞取汁三升, 頓服之(『醫略抄』, 치정중방)

→백제신집방에 운하기를 국의 입과 줄기를 함께 넣고 짜서 비틀어 짜서 즙 세되를 취하여 조금씩 이를 복용한다.

E) 『의심방』 권2, 『新羅法師方』 云: 凡服藥曰 “南無東方藥師瑠璃光佛, 藥王 藥上菩薩, 耆婆醫王, 雪山童子 惠施阿竭, 以療者, 邪氣消除, 善神助, 五藏平和, 六府調順, 七十万脈, 自然通張, 四 强健, 壽命延長, 行住坐臥, 諸天衛, 莎訶.” 向東誦一遍, 乃服藥.

→新羅法師方에서 이르기를 ‘藥을 복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모두 주문을 외운다: “東方에 계신 藥師瑠璃光佛과 藥王菩薩, 藥上菩薩 및 耆婆醫王, 雪山童子에게 歸依하오니 靈藥을 베풀어 환자를 치료해 邪氣가 소멸되어 없어지고(“東方에 계신 藥師瑠璃光佛께 歸依하오니 藥王菩薩, 藥上菩薩 및 耆婆醫王, 雪山童子께서는 靈藥을 베풀어 환자를 낫게 해 주시고 邪氣를 없애 주시며’) 善神이 도와줘서 五藏이 平和롭게 되고 六府가 順調롭게 되며, 70萬脈이 저절로 通하고 퍼지며 팔다리의 四肢가 强健해지고 壽命이 延長되며 언제든지(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諸天이 보호하여 주소서. 스바하(속히 성취해 주세요)!” 東쪽을 向해 한번 외우고는 바로 藥을 복용한다.

F) 『醫心方』 권10, 「治積聚方 第一」 『新羅法師方』: 續隨子[一名 耐冬花] 去上皮 以酒一合 和而服之二七粒 量人老少用之.

→『신라법사방』 ; 속수자(續隨子; 내동초)는 걸쭉질을 버리고, 술 한홉에 14알을 넣어 이를 복용한

G) 『醫心方』 권28, 「房內」 「用藥石 第二十六」,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 [一]云: 大唐國滄州景城縣法林寺法師惠忠傳曰: 法藏 記曰, -중략-

다. 노소를 잘 헤아려 적절하게 쓴다.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唐나라 滄州 景城縣 法林寺의 法師인 惠忠의 「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 法藏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가로되 -중략-

H) 『醫心方』 권28, 「房內」 「用藥石 第二十六」 『新羅法師秘密要方』云: 八月中旬, 取露蜂房, 置平物, 迫一宿, 宿後取內生絹袋, 懸竿陰干 十旬限 後爲妙藥.

→『신라법사비밀요방』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력 8월 중순에 노봉방을 취하여 평상에 놓고 하룻밤 가까이 지난 뒤, 이를 비단자루에 넣고 낚싯대에 매달아 최소한 100일쯤 그늘에 말리면 묘약이 된다(『의심방』 권28, 방내 용약석 제26).

I)이때 신라의 국왕이 배 81척을 만들어 보냈다. 이를 주도하던 대사 이름은 “金波鎮漢紀武”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약방을 깊이 알았다. 그리하여 황제의 병을 치료하여 낫게 하였다 (『고사기』 하권)

J)윤공제는 ... 장년에 이르러 중병에 걸려 행동거지가 불편하였다. ... 보위를 사양하여 말

하기를 ‘나는 불행히도 중병에 걸려 건지 못한다. 또 나는 병을 고치려고 말씀도 안 드리고 혼자서 몰래 몸을 망가뜨리며 치료하였지만 오히려 차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선황이 책망하여, 너는 중병이라고 하여 몸을 마음대로 망가뜨렸다. 불효가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래 살더라도 왕위를 이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또 나의 형 두분 천황은 내가 어리석다고 업신여겼다. 이는 여러 경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 과인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일본서기』 권13, 윤공천황 즉위전기)

K)윤공제 3년 춘정월 1일에 신라로 사자를 파견하여 좋은 의사를 구하였다. 가을 8월 의사가 신라에서 와서 천황의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 얼마 안되어 병이 다 나았다. 천황이 기뻐하고, 의사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귀국하게 하였다.(『일본서기』 권13, 윤공천황 3년(414))

L)신라약 신라국 <缺> 진명의 처방

윤공천황의 왕후, 衣通郎女の 인후(咽喉)에 병이 난 것을 치료하는 약이다.

大化國 高市 加多의 신사에서 전하다.

두통과 목 안의 염증으로 아파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고열이 나면서 땀은 없으나 오한이 들며 <괴로운 것에 대한 약>

갈근, 궁궁, 방기, 목근자, 복령, 버들, 황금, 생강 8가지를(결)

M)삼국사기』 권45, 녹진전 ‘綠眞은 姓과 字를 알 수 없으나, 아버지는 일길찬 秀奉이다. 녹진이 23세에 비로소 벼슬하여 여러 차례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헌덕대왕 10년 무술(818)에는 執事 侍郎이 되었다. 14년(822)에 국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同腹의 아우 秀宗을 태자로 삼아 月池宮에 들게 하였다. 그때 각간 忠恭이 상대등이 되어 政事堂에 앉아 내외 관원을 전형, 선발하고 퇴근하여 병에 걸렸다. 國醫를 불러 진맥하니 “병이 심장에 있으므로 龍齒湯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그는 21일간의 휴가를 얻어 문을 닫고 손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녹진이 가서 뵈기를 청하였으나 문지기가 거절하였다. 녹진이 말하였다. “下官은 相公께서 병환으로 인하여 손님을 사절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분에게 꼭 한 말씀을 드려서 답답한 근심을 풀어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뵈지 않고서는 물러갈 수 없습니다.” 문지기가 두 세 번 아뢰었더니 불러들여서 뵈게 되었다. 녹진이 나아가 말하기를 “듣건대 귀하신 몸이 편안하지 않으시다 하오니,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여 이슬과 찬바람에 시달려 혈기가 조화를 잃어 몸이 불편하신 것이 아십니까?” 하니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어릿어릿하여 정신이 개운치 않을 뿐이다.” 하였다. 녹진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공의 병환은 약이나 침이 필요하지 않고, 지당한 말과 높은 담론으로 한 번 쳐서 깨칠 수 있는데, 공은 들어 주시겠습니까?”[충공이]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멀리 버리지 않고 특별히 와 주었으니, 원컨대 좋은 말을 들려주어 나의 가슴 속을 씻어 주오!” 하므로, 녹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략”이렇게 되면 刑政이 실로 엄숙해지고, 국가가 화평하여, 비록 公孫弘 처럼 집의 문을 열어 놓고, 曹參과 같이 술을 내면서, 친구들과 담소하고 즐겨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 저것 약을 먹느라고 부질없이 시간을 소비하며 사무를 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간[충공]은 이에 醫官을 사절해 보내고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입조하니 왕이 말하기를 “경에게 날짜를 정해 놓고 약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조정에 나왔는가?” 하였다. [충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녹진의 말을 들으니 藥石과 같았습니다. 어찌 용치탕을 마시는 데 그칠 정도이겠습니까?” 하며, 이어 왕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과인이 인군이 되고 경이 수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 후에 熊川州都督 憲昌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였

는데, 녹진이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왕이 그에게 대아찬의 관등을 주었으나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였다.“

<고대의학 자료(2013.9.17)>

代淮南杜相公論新羅請廣利方(代淮南杜司徒奏新羅請廣利方狀)⁷⁾

貞元十九年九月十七日(당 덕종 803, 신라 애장왕 4년)

회남절도관찰처치등사에게 정원 광리방 5권을 조칙으로 내리시었나이다.

右臣(杜祐)은 신라 하정사 朴如言이 앞의 방 한부를 청하여 귀국하려 한다는 장계를 받았습시다.

엿드려 생각건대 책을 찬집하여 신비한 효과는 성상(덕종)의 가슴에서 나왔습시다.

약은 반드시 쉽게 구해야 하고, 병에는 숨은 증상이 없게 하고, 의학 기술의 비밀스런 요체를 찾아내고, 유행병에서 산 목숨을 구원하여, 저 華胥(이상국, 질병없는 나라)씨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이 모두 장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먼 곳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니 아름답기가 풍성하기 그지없는데, 또 신에게 진정으로 청하는 바가 있었나이다. 생각건대 신라는 오래도록 울타리라 일컬어 왔고, 평소 문물을 받아들인 터에 항해하여 보물을 바치니, 이미 중국의 예가 통하였다고 하겠습시다.

병을 낮게 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어찌 다만 외국이라고 차별을 두겠습니까. 바로 四海를 우리나라처럼 여기는 때로, 완벽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신은 곧 베껴주고자 하나, 감히 마음대로 못하는 지라, 삼가 들은 바를 기록하여 아뢰웁고 엿드려 勅旨를 기리웁니다.

7) 『全唐文』권603, 13책, 7784쪽.